

# 야권연대 '아름다운 단일화'해야 효과

###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유권자 거부감 커 성과 없어

### 투표용지 인쇄전 성사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야권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선거 연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를 필승의 카드로 내세웠다.

야권 연대는 유권자도 공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의 경우 야권표를 집중하며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정치공학적 필요에 따라 마지막에 하는 연대는 유권자 거부감으로 효과가 제한적이기도 했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야권 연대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완강한 반대 입장과 촉박한 시간 탓에 성사여부는 물론 성사되더라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0일 야권 연대 협상을 적극적으로 타결했다.

양당은 통진당 후보로 단일화될 전라지역 16곳과 양당 후보자 간 경선지역 76곳을

선정했고, 이는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수도 권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48석이 걸린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이 30석, 통진당이 2석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16석을 차지했다. 경기(52석)에서도 야당이 31석(민주당 29석, 통진당 2석)을 얻어 새누리당(21석)에 우위를 점했고,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6석, 민주당 6석으로 팽팽했다.

그러나 이후 야권 연대는 2013년 통진당의 종북논란으로 제동이 걸렸고,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수도권 판세를 뒤집기 위한 막판 카드로 단일화를 성사시켰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선거연대가 이뤄지더라도 효과를 보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선거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이 협상을 2월 중순에 시작, 최종 합의까지 22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20대 총선일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상 시한은 13일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3자가 관련돼 단일화 방정식이 더 복잡해졌다.

특히 각 당이 공천을 상당 부분 마친 상황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연대를 밀어붙일 경우 각 후보들이 이에 반발할 경우 '상처받은 단일화'로 귀결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특히 19대 총선에서 3% 이내의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접전지역 24곳은 단일화 없이 이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권연대 불가” 결연한 안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중앙당사에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동남갑 한경노·서구갑 양병현

### 새누리 광주 6개 지역구 총선 후보 확정

4·13 총선에 나설 새누리당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가 확정됐다.

13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동·남구에 문중식(57) 후보, 서구갑 양병현(61) 후보, 서구를 김연욱(49) 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했다.

앞서 당은 동·남구갑에 한경노(56), 북구을에 이인호(52), 광산구갑에 정운(69)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광주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 남은 2곳에도 후보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남갑 한경노 후보는 광주시당 남구 당 협원장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동남을 문중식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자치분과 자문위원과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

구갑 양병현 후보는 상지대학교 영미어문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구를 김연욱 후보는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북구를 이인호 후보는 (주)호산피네티 대표이사, 전남대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과 객원교수를 지냈다.

광산갑 정운 후보는 광산구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각 선거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본격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4·13 총선 현장

### 주승용 사무소 개소... “여수에 힘 될 것”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여수시 쌍봉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수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여수를 가장 잘 아는 일 잘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시·도의원,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 박혜자,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혜자(서구 갑) 의원은 13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광주지역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뒤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 등 광주지역 10개 장애인단체 회장단은 현 정부 들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 차원의 총선공약을 주문했다.

### 신문식 사무소 개소... “민생정치 실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3일 보성군 보성읍에 선거사무소를 연 뒤 본격적인 4·13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치료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어민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처받은 호남민심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30년간 수 많은 선거현장에서 축적된 현장·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진욱 “총선, 기득권 현역들 무덤 될 것”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동남 갑 예비후보는 13일 “국민의당 광주경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공천혁명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주경선이 낡고 썩은 기득권 현역의 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10년 후 한국정치의 주역이 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해 주는 것이 곧 공천혁명이자 총선 승리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남재 “안철수, 대승적 차원 야권연대를”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13일 당이 국민의당에 야권연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연대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야권분열로 수도권과 비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3당 구도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유정 “아동학대방지·지원법 발의할 것”



국민의당 김유정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3일 아동학대와 관련,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미국의 경우 아동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법 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정성 “5·18왜곡 교과서 전량 회수해야”



국민의당 서정성 광주 동남 갑 예비후보는 13일 “5·18 역사적 의의를 축소 및 왜곡하는 내용으로 서술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정 교과서를 전량 회수하고 5·18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후보는 특히 “16일 예정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및 5월 단체 등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왜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교과서 폐기 운동 전개할 것을 촉구하며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빈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꼭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관산 갑 예비후보는 13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별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10만원 올려 30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내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지급약속을 반드시 지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 김성환 “지역정책으로 선의의 경쟁하자”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 등 선심성 공약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이나 지역 발전 정책 등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형근 “광주 시민사회단체 요람 동구에”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동구 3대 발전전략 중 하나인 ‘자치역량 모야’ 전략과 관련, “지역과 부문, 개별단체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연대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주 시민사회단체 요람’(가칭)을 광주시와 협의해 동구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구 도심재생선도지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형기자 golee@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파라솔 바깥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